얼어붙은 KBO FA시장… 구단들 지갑 닫아

LG 트윈스 오지환 4년 40억원이 현재 최고액
안치홍·김선빈·전준우 등 14명 협상 지지부진

거액 계약 소식이 연일 터져 나오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와 달리 국내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은 그야말로 얼어붙었다.

KBO리그 FA 시장은 11월 4일 개장했다. KBO 사무국의 공시로 FA 시장에 나온 선수는 19명이다.

이 중 23일 현재 계약을 마무리한 선수는 5명에 불과하다. 14명은 아직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지 못했다.

포수 이지영이 가장 먼저 도장을 찍었다. 그는 11월 13일 3년간 총액 18억원을 받는 조건에 키움 히어로즈에 잔류했다.

모범 FA의 대명사 유한준이 엿새 후 배턴을 받아 2년 총액 20억원에 kt wiz에 남았다.

이후 정우람(한화 이글스·4년 39억원), 송은범(LG 트윈스·2년 10억원), 오지환(LG·4년 40억원)이 차례로 계약서에 사인했다.

한 명의 예외 없이 모두 올해 뛴 소속팀과 재계약했다.

경제 사정이 좋지 않자 거의 모든 구단이 지갑을 완전히 닫았다.

프로 10개 구단과 프로야구선수협회는 '올해 안 타결, 내년 시즌 후 도입'을 목표로 FA 제도 개선안 합의를 추진했지만, FA 보상안과 FA 취득 기한 단축 등 핵심 의제에서 의견이 갈려 결국 내년 초로 논의 시점을 넘겼다.

허리 졸라매기로 구단 운영비를 줄이는 상황에서 FA 제도 개선 협상마저 타결짓지 못하자 구단은 더욱 곳간을 잠갔다.

현재 분위기라면 남은 14명도 대부분 현 구단에 잔류가 예상된다.

오지환의 백지위임 사례가 말해주듯 협상 시간이 길어질수록 선수들은 돈줄을 쥔 구단에 백기 투항할 공산이 짙어졌다.

LG 트윈스 오지환.

한화 이글스 정우람(왼쪽)과 정민철 단장.

이번 FA 시장의 '알짜배기'로 다른 팀으로의 이적 가능성이 높았던 준척급 안치홍과 김선빈(이상 KIA 타이거즈), 전준우(롯데 자이언츠)와 원소속팀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건 한파가 불어 닥친 KBO리그 분위기를 단적으로 입증한다.

A구단 관계자는 안치홍의 영입에 관심을 뒀다가 운영비 절감 등의 문제로 뜻을 접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각 구단이 외부 FA 영입에 미온적인 터라 남은 FA 선수들의 원소속팀 잔류 협상은 자존심과 예우의 접점을 찾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선수들은 구단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체면을 세워주기를 바란다. 구단들은 프랜차이즈 스타를 어느 선까지 대우하느냐로 연말연시 고민할 참이다. 연합뉴스

도체육회장 선거인 후보자 458명 접수

단체 373·시체육회 85명
선거인 1월 2일 공개추첨

첫 민간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선거인 후보자로 458명이 추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관영)는 지난 23일 도체육회관 소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해 체육회장 후보자 유의사항 공지(안), 선거인 후보자 확정과 선거인 추첨 방식(안), 후보자 기자간담회 개최(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선거인 후보자는 지난 20일 마감 결과 종목단체 373명(종목단체 회장 48, 선거인 후보 325)과 시체육회 85명(시체육회장 2, 시종목단체 51, 읍·면·동체육회장 32) 등 총 458명이 접수됐다. 중복 추천된 8명의 선거인 후보자에 대해선 본인 의사를 확인해 희망 단체를 결정하고 이달 30일까지 명부 작성을 마감할 예정이다. 선거인 배정은 2020년 1월 2일 오후 3시 도체육회관 세미나실에서 공개 추첨으로 진행된다.

도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유의사항은 사전 도체육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 후보자 등록은 2020년 1월 4~5일 이틀간 이루어진다. 후보자 등록 시엔 후보자의 선거공약과 출마의 변을 규격화된 양식에 의해 제출받아 도체육회 홈페이지 팝업창과 사무처 게시판에 게재하기로 했다. 기자 간담회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 내년 1월 8일 실시될 예정이다.

이달 27일 오후 2시엔 도·시 선거관리위원과 체육단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공정선거 실천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공모로 선발된 공정선거 지원단도 이날 출범식을 갖는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크리스마스 맞아 덩크 슛 하는 산타 12월 2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벌어진 뉴욕 닉스와 워싱턴 위저즈 간의 미국프로농구(NBA) 경기 하프타임 중 트램펄린을 이용해 덩크 슛을 선보이는 이벤트가 진행됐다. 경기는 워싱턴이 121:115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제주국제대학교 하키팀 졸업생 등 5명 국가대표

제주국제대학교 소속 하키팀 하현수(3학년) 손다인(2학년) 양성우(2학년) 송해성(1학년) 선수와 졸업생 강영빈 선수가 하키국가대표로 선발됐다. 대한하키협회는 최근 대회 성적과 개인 능력을 평가해 세대 교체를 위한 새로운 국가대표 명단을 발표했다.

하현수(골키퍼)는 2017~2018년 국가대표 상비군을 지냈고 지난 8월 제33회 대통령기 하키대회에서 뛰어난 기량으로 준우승을 이끄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손다인(필드)은 2018~2019년 국가대표 상비군 베스트 선수로 제62회 종별선수권대회, 제33회 대통령기 하키대회에서 기량을 발휘하며 팀에 좋은 성적을 안겼다. 양성우(필드)는 2017년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발탁된 선수로 대통령기 하키대회에서 실력을 드러냈다. 송해성(필드)은 2018년 국가대표 상비군 선수로 처음 뽑힌 이래 차곡차곡 경기력을 키워가고 있다. 지난해 국가대표팀에 오른 강영빈은 국군체육부대(상무)에 입대해 활약하고 있다. 진선희기자

제주도 철인3종협회 서원민 사무국장, 엘빈 대표, 조남식 회장, 최영준 홍보대사(왼쪽부터).

제주국제철인3종경기 활성화 맞손

제주도 철인3종협회서
싱가포르 회사와 협약

제주국제철인3종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된다. 제주도 철인3종협회(회장 조남식)는 최근 싱가포르 오렌지룸과 국제선수유치를 위한 전략적 업무 제휴(MOU)를 체결했다.

오렌지룸은 유산소경기 전문 스포츠이벤트회사다. 철인3종 대표 브랜드대회인 트라이팩터를 개최하는 곳으로 올해도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7개국에서 20여개 시리즈 경기를 이어왔다.

철인3종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대규모 국제선수단 참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오렌지룸의 트라이팩터가 아시아권에서 인지도가 높고 다년간 축적된 선수데이터와 등록시스템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면 제주가 아시아 철인3종의 본고장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남식 회장은 "오랜기간 침체기를 겪고 있는 제주국제철인3종경기가 제주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국제대회로 거듭나고 제주도를 아시아 지역 철인3종경기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선희기자